

2021 아이다호 공동행동 "우리가 여기 있다" 릴레이 기자회견 발언문

1. 아이다호 공동행동 선포 기자회견

사회 : 한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발언

- 오소리(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태환(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 예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성명서 낭독

#오소리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아이다호 IDAHOBIT,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Biphobia, Interphobia and Transphobia)입니다. 이 날은 1990년 5월 17일, 동성애에 대한 오랜 편견을 깨고,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목록에서 삭제한 데서 유래합니다. 무지개행동은 2012년부터 이 날을 기념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혐오를 바로잡고 성소수자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캠페인 '아이다호(IDAHOBIT) 공동행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성소수자 동료들을 먼저 떠나보낸 슬픈 경험을 지나고, 서로의 곁을 살피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슬로건이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외쳐졌던, 너무나도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또 강력한, 우리에게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이 사회에 필요한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여기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1년 아이다호 공동행동을 통해 '우리가 여기있다'는 것을 다시금 선언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성소수자 권리 향상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외칩니다.

올해 아이다호는 성소수자 대중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프라이드 플래그와 함께 존재를 드러내는 메시지를 수집하여 만국기 형태로 이곳 광장에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아이다호 공동행동에 함께하는 개별단체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으로는 성소수자 대중들의 다양한 정체성과 목소리들이 담긴 프라이드 플래그들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플래그처럼, 대중사회에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여기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현시점에 필요한 성소수자 인권 과제가 곳곳에 가 닿기를 바랍니다.

#태환

안녕하세요. 한국농인LGBT설립준비위원회 상임활동가 태환입니다.

저는 청각장애인,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성소수자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3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성애중심인 농사회에서는 혐오수어와 에이즈 등을 논하며 혐오를 쏟아내고 농인, 수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청사회에서는 '농인'이라는 이유로 소통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 어떤 곳에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야했습니다.

농사회에서는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는 농인으로, 교차 차별을 경험하면서 더이상 이런 반복을 멈추고 싶었습니다. 농인이 불쌍하고 동정받아야할 존재가 아니고, 성소수자 역시 불쌍하고 동정받아야할 존재가 아닙니다. 농인성소수자 소수자성을 2가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더 동정받아야하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활동을 보고 자긍심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더이상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설 수 있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사회 안에서의 성소수자가, 성소수자 안의 농인이, 서로 마주하며 함께 연 대해 나갈 내일을 기대합니다.

#예정

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예정입니다.

어제 발표된 평등의 에코-100명단보셨나요? 다양한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평등의 메아리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섭외를 위해 찾아간 한 분이 물으시더라고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어야할만큼 세상에 차별이 많으냐"고 말이죠. 저와 이종걸 공동대표님이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한숨 고르고 이야기 나누었고 지금 명단에 이름도 올리셨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차별이 많은가, 이 질문 앞에 처음엔 당황했지만 곰곰히 생각하니 이해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차별을 진단할 기회조차 없었기에 차별은 무엇인가 무디었던거 아닐까요. 1년전 바로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성소수자는 당신곁에 있습니다'라는 현수막 칼로 찢어버린 일이 있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없는 세상은 차별이 곧 물리적 폭력으로 통용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진이 칼로 베어지고 두들겨 맞아야만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상에는 차별이 만연하고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혹은 자주 경험하지만 어떻게 말할지, 어디에 말할지도 잘 모릅니다.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사회가 함께 진단하는 법입니다. 그 차별을 어디에 말할지 알려주는 법이며 차별을 말하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세상이 뒤집어질것 처럼 반대하는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차별이 그리 많은지도 잘 모르는 사회가 세상에 차별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알게되면 기함할 일이겠죠. 우리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세상 한 번 뒤집어봅시다. 차별금지법 이제 우리가 직접 제정합니다. 국회의 테이블에 차별금지법을 올립니다. 5월25일부터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됩니다. 평등의 메아리로 함께 해줄 평등의 에코-100, 그 100번째 자리를 차별과 혐오를 방관하는 세상에 빠친 당신의 자리로 비워두었습니다. 10만행동에 함께 하여 차별금지법 제정합니다!

2. 트랜스해방전선

사회 : 정성광(트랜스해방전선 집행위원장)

발언

-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강민진(청년정의당 대표)
- 빌리(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팀장)
- 김겨울(트랜스해방전선 대표)

#빌리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트랜스젠더퀴어인권팀)

<비병리화를 넘어 포괄적 의료권을 위하여>

5/17일 아이다호 데이는 세계보건기구가 1990년에 ‘동성애’를 국제질병분류(ICD)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날입니다. 그리고 2019년, 세계보건총회는 제11차 국제질병분류에서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하던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라고 선포된 지 29년 만에 드디어 트랜스젠더도 존재만으로 질병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 표준 지식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트랜스젠더 비병리화 운동을 펼쳐온 활동가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일 뿐, 이제 우리는 비병리화를 발판삼아 그 다음 숙제들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저는 많은 숙제 중 몇 개를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트랜스젠더들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의료적 혹은 외과적 트랜지션을 원하지 않습니다만, 의료적 트랜지션을 원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생존과 지극히 연관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있어 아직까지도 성별을 중요시 하는 한국 사회에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법적성별정정을 필요로 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의료적 트랜지션을 어느정도 진행을 한 개인에게만 법적 성별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적 트랜지션을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합의를 본 국가치고는 의료적 트랜지션의 벽은 터무니없이 높습니다. 호르몬 처방과 같이 그나마 진입장벽이 낮은 조치 마저도 그러합니다. 2020년 진행된 트랜스젠더혐오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호르몬 처방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60%가 처방을 위해 방문하는 의료기관이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편도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성기재건과 같은 외과적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어서 많은 경우 해외에서 관련 의료 서비스를 받고 와야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인권증진에 함께하는 의사가 몇 있다고는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서비스를 이 몇 분의 호의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의료진을 교육함에 있어 트랜지션에 관련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국민이 필요한 의료적 서비스를 위해서 국경을 넘는 일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트랜스젠더 의료비용부담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호르몬 요법을 받고 있지 않거나,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각각 51%, 71% 였습니다. 호르몬의 경우 주기적으로 투여해야 하고, 외과적 수술 같은 경우 수천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성별정정을 필요조건으로 만들어 놓고는 미용이라니, 한 입으로 두 말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정정을 떠나서라도, 건강하고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단지 미용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가가 트랜스젠더를 그냥 외적으로 변신하는 존재로만 단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합니다. 한국의 전국민 의료보험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 명성에 걸맞게 트랜지션 관련 의료 지출 역시 포함하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마땅합니다.

당연하게도 트랜지션 관련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한다고 해서 트랜스젠더의 의료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계는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친화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법적 성별과 다른 성별로 활동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을 스스로 자정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의 병원 이용 관련 경험을 살펴보았을 때, 실태조사 참여자의 29%는 접수된 이름이나 성별이 맞는지 재차 확인을 받았고, 33%는 자신의 성별과 맞지 않는 입원실이나 탈의실을 이용해야 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10명 중 1명은 모욕적인 발언이나 질문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료종사자의 인권의식이 부족할 때, 가장 많이 다치는 것은 차별의 당사자입니다. 실제로 차별은 사람을 더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병원을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편적 의료보험이란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 12개월 간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했던 트랜스젠더 중 37%가 방문을 포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더 아픈 이들이 병원을 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노력과 특수성을 고려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의료기관에 성중립화장실을 비롯한 성중립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환자를 대함에 있어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들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료와 처방에 필요한 것이 아닐 경우에 병원에서 굳이 주민등록번호에 드러난 성별을 토대로 환자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는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노력입니다. 이와 함께,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트랜지션에 대한 연구, 호르몬제와 타 약물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와 같이 트랜스젠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별 다양성에 대한 의료계 종사자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합니다.

사실 여기 모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를 아프게 만든다는 것일요. 성별이분법과 이성애중심주의에 갇혀 다양함을 마주하지 못한 의료계는 먼 길을 되돌아와서 우리가 맞았다고 합니다. 정체성을 보고 정신병이라 낙인을 찍은 역사를 참회할 생각이려면, 변화를 일구는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의료계 종사자로서 목소리를 싣고, 이를 의료 현장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1차 국제질병분류는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2025년에 다음 개정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따라 '성주체성장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하고, 정부는 이에 맞춰 트랜스젠더가 겪고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적 대책을 세우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그칠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에 떠밀려 트랜스젠더 동료 시민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사회에서 정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직장 동료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대 응답자의 73%, 30대 응답자의 52%가 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정부는 성소수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동성결혼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작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민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가 수도 없이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좀처럼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만드는 균형법상 추행죄는 여전히 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고 변희수 하사를 일터 밖으로 내몰았던 국방부의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금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첫 발의 후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권은 습관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는 성소수자 시민을 평등하고 존엄하게 대우하는 정치입니다.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성별정정특별법 제정, 성소수자 혐오 행사 공공기관 대관 금지와 같은 일을 실현할 때 비로소 정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습니다. 청년정의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로 성소수자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날씨가 참 좋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잠깐 서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가는 길이 바쁘시거든 오늘 어디 식당이나 카페에 들어가실 일이 있을 때 한 번 둘러보십시오. 성소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끝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옆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마주보고 있는 일행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성소수자인지 쉽게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진 않으니까요. 그렇다고 걱정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다고 건물이 무너진다고거나,

지진이 난다거나, 내 몸에 두드러기가 돋는다던가 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성소수자들이 자기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알게 되었을 때, 비성소수자의 삶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커피를 마시고, 똑같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튿날엔 똑같이 회사를 가고, 똑같이 취미생활을 하며, 똑같이 자기계발을 하고, 똑같이 미래를 그릴 것입니다.

그러니 성소수자들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성소수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몰랐을 때, 마찬가지로 달라지는 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 부릅니다.

지난 2월,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변희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간 훌륭한 인사 평가를 받으며 탱크를 몰던 직업군인입니다. 동료들과 사이도 좋았고, 따르는 병사들도 많았습니다. 그가 시스젠더 남성인지 트랜스젠더 여성인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겠습니까. 그저 변희수라는 사람의 둥글둥글한 성격과 군에 대한 애정, 군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것들이 높게 평가받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던 그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고 성별재지정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변희수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자기 잇속만 챙기는 이기주의자라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군에서 쫓겨나버렸습니다. 어제의 변희수와 오늘의 변희수가 다르지 않은데 그는 직장에서 쫓겨나고 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희수라는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강제 전역의 부당함을 밝히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악플에서나 불법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온갖 편견과 혐오가 대한민국 국군의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되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은 여성이 아니라 말하고, 국방부 스스로 만든 심신장애 기준에 트랜스젠더는 장애라 쓰여있으니 그건 장애라고 주장합니다. 재판이 아니라 말장난으로 고인을 능욕하는 수준입니다. 변론을 맡아 보는 법무관들이 우리가 낸 세금을 써서 트랜스젠더 국민들을 모욕합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 반성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기가막힌 년센스를 끝내야 합니다. 변희수 하사가 재판에서 승리하여 강제전역이 부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변희수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시오. 탄원운동에 동참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시오. 함께 싸워 차별을 끝내고 내가 나로 살아가기로 결심해도 안전하고, 평온하며, 달라질 거 없는, 별 거 없지만 너무 어려운 이 벽을 함께 넘어갑시다.

#김겨울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반갑습니다 트랜스해방전선 대표 김겨울입니다

국제 성소수자혐오 반대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아이다호 데이부터 올해까지 오는 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굳이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아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일하던 곳에서 쫓겨나고, 입학을 거부당하고, 채용에서 차별을 당하고. 그리고 이런 혐오들에 대해 대항하려 하면 이 혐오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요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내온 길이었습니다. 그 사이 국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평등법 시안을 내놓은 지도 1년이 되어 갑니다. 그사이 수도 없이 약속했던 민주당 발 차별금지법은 껌껌무소식입니다. 곧 발의한다는 언론에서의 인터뷰들이 무색하게도 발의에 대한 이야기가 자취를 감춥니다. 나중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 15년이 미뤄진 차별금지법이 또 미뤄진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국민적 합의가 먼저라는 허울뿐인 핑계로 논의를 미루고 차별에 고통받는 죽음을 외면할 것입니까? 먼저 나서서 합의를 만들어내고 국민을 설득해야 할 정치권의 역할에 충실해 주십시오.

차별은 살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의 트랜스젠더는 의료비 폭탄과 과도한 성별정정 요건 그리고 취업난의 삼중고 악순환 속에 좌절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랜지션 전후의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현행 제도 속에서 트랜스젠더의 학력과 경력은 단절되어 불공평한 출발선으로부터 비롯된 빈곤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삶의 고난과 사회의 혐오속에 스스로 생을 놓아버리게 되는 비극을 이제는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된다는 공동체 내 합의의 선언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시발점이 될 법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개개인을 구성하는 정체성은 단일하지 않으며 결국 그 어떤 누구라도 약자성을 지니고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약자성은 다시 말해 다름이고 다름은 곧 다양성입니다. 다양성이 없는 사회에 미래는 없습니다. 차별받는 약자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 한국 사회 이제는 바꿉시다.

감사합니다.

3. 성소수자부모모임

사회 : 길벗(성소수자부모모임)

발언

- 하늘(성소수자부모모임)
- 지월(성소수자부모모임)
- 성명서낭독

#하늘

차별금지법이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반한다는 염수정 추기경님께 전합니다.

염 추기경님,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교회 신자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생명주일을 맞아 지난 4월 21일 발표하신 담화문에 대해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추기경님께서 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을 설명하시며 ‘동성애’와 ‘비혼 동거’, ‘사실혼’을 이에 반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혼전동거와 사실혼을 동성애와 일치시켜 설명하셨지요. 또한 “동성애 행위에는 참된 일치와 생명 출산, 남녀 간의 상호보완성이라는 의미와 가치”가 빠져 있으며, 이성 간 “부부의 일치와 사랑, 그리고 자녀 출산과 양육”이 혼인과 가정의 고유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동성 간 혼인은 자녀 출산이 불가능하며, 혹여나 자녀를 갖는다고 해도 그것은 “한 아빠와 한 엄마를 갖고 싶은 자녀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추기경님,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이란 과연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가톨릭의 신앙과 윤리관에 근거한 가정과 혼인이란 이성애자 여성과 이성애자 남성이 만나 서로 사랑하여 결혼하고, 이들의 성관계는 자녀 출산을 위해서만 기능해야 하는지요. 성서에 하느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쓰여 있더라도, 그리고 이를 근거로 신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할지라도, 사람은 무조건 이성애적 관계를 맺는 것도 아니며 여성 혹은 남성으로만 나뉘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은 정말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소수자를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성소수자들을 잘못 창조하셨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성소수자들의 존재는 하느님의 실수입니까?

가톨릭 신자인 저로서는 추기경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시편 139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대로, 모든 인간은 제각각 고유하면서 그 자체로 경이로운 존재로서 서로 다르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객관적인 무질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고유한 질서’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간은 굳이 이성 결합이 아니고도 충분히 서로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지요.

오히려 가정과 혼인에 관한 신앙과 윤리관이 막상 이성 간의 혼인이나 성적 관계와 행위에만 머물러 있다는 건, 한편으로는 교회의 인간에 대한 이해가 육체 그 자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모순처럼 보여집니다. 영적 가치와 개별 인간의 고유하고 무한한 가치를 역설하면서도 막상 창조주의 섭리를 단지 생식 능력만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건 아닐지요. 마찬가지로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단순히 “동성애 행위”라는 성적 관계-행위로 결부시킬

만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성적 지향을 특정 성별간 성행위만으로 연상하고 그것이 마치 성적 지향의 핵심인 것으로 취급한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의 성애적 개념이 '행위'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격'과 '성향'은 그렇게 말로써 손쉽게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 성향'을 비롯한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인간을 구성하는 정체성 중 가장 중심이 되는 하나입니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그저 그 자체로 고유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된 것이지요. 심지어 이는 가톨릭교회 교리서에도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기경님께서 언급한 "염색체나 신체 발달상의 어떤 이유로 이런 구분이 모호한" "예외적인 경우"의 존재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성소수자입니다. 추기경님께서 왜 생물학적인 성적 구별에만 치중하고 그밖에 다른 존재들은 예외 취급을 하십니까? 그렇게 "예외"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입니다.

추기경님께 여쭙습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사회적 소수자인 성소수자가 사회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받은 차별과 배제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추기경님께서 말씀하신 "동성애 성향 때문에 내적 시련을 겪는 이들에게 친절과 존중, 관심과 배려"를 과연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껏 한국 가톨릭교회는 '동성애'는 무질서하다는 이유로 교회 내 성소수자를 없는 존재로 취급해왔습니다. 사실 추기경님이 지적한 "차별이나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의 주체는 바로 한국 가톨릭교회입니다. 누군가의 존재와 그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정하고, 그 존재를 파악은커녕 인지조차 못하는 게 바로 차별이자 폭력입니다. 이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담화문이 쓰였겠지요. 이 담화문도 성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폭력이라는 걸 인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지조차 어렵다면 한국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추기경의 언어가 교회의 신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담화문을 접한 신자들이 성소수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그리고 성소수자 신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주일을 맞아 추기경님께서 이런 폭력적인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교회는 '생명'의 가치로부터 격절되어 있음을 반증한 셈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대해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추기경님께서 강조하신 가톨릭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 대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생전 소수자와 약자들의 삶에 주목하고 그들과 연대하신 예수님의 삶과 오늘날 한국 가톨릭교회는 전혀 닮아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예수님의 생애에 비추어 한번 사려 깊은 성찰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가 소수자와 약자들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한 건 아닌지, 오히려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온 건 아닌지 말입니다.

#지월

가정의 달인 5월에 유난히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는 '부모'입니다. 우리는 '성소수자' 뒤에 '부모'라는 이름을 내걸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증진과 권리 수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씩 이 '부모'라는 단어에 위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부모'라는 표현을 앞세워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이들은, 차별과 혐오를 재생산하는 반동성애 단체이면서, '부모'라는 단어 앞에 '건강'

‘바른’ ‘생명’ ‘윤리’라는 수식어를 달고 활개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한 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한 뒤로, 이들은 교육청 앞에 근조화환을 보내고 반대 농성을 벌이며 “공교육은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틀렸습니다. 성소수자에게, 공교육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은 성소수자 아동-청소년에게 전혀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공간이어왔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건강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성적 소수자로서 그 존재를 인정받고 보호받기는커녕 수시로 혐오에 노출되어왔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비성소수자 청소년에 비해 몇 배로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발표된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이런 현실을 반영한, ‘공교육을 소생하는’ 환영할 만한 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근친상간, 소아성애, 동물성애 등과 같이 아무 관계없는 극단적인 사례들을 동일선상에 놓아 궤변을 반복하고 공포감을 조성하며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매번 뻔한 패턴에 조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사회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지켜야 한다,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무엇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까? 이 말이 향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당신들 자신이 아닙니까? 누구의 자녀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부모’라는 이름의 탈을 쓴 혐오로부터 모두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부모-자식 간을 지배-종속 관계로 취급하고 아이들의 주체성마저 억압하는 그들에 의해, ‘바른’ 생명, ‘윤리’ 그리고 ‘부모’라는 표현은 곡해되어 이미 그 본래 의의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모’라는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그들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부모’와 여러 수식어들에 기댄 빈약한 논리와 자극적인 언사, 목청만 높이는 막무가내는 이제 대중들에게 먹이지 않습니다.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로 증오선동을 일삼는 그들의 행동은 이제 누구에게나 폐단과 악행으로 읽히며 더는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폭력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바로 당신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설득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모’로서 조언합니다. 공교육 현장을 차별과 혐오로 오염시키는 당신들의 행태는 당신들의 자녀를 보호하고 지키는 일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성소수자가 주변에 없다고 그리고 당신의 자녀가 당연히 성소수자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성소수자들이 우리 주변과 일상 곳곳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 성소수자 인구 비율은 약 5% 정도에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 250만명이 넘는 성소수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비롯한 사회의 차별과 혐오 때문에, 성소수자들은 제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며 살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동료, 친구, 그리고 가족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못하는 그 ‘부모’ 역할을, 부모의 이름을 내걸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를 위한 일은 곧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성소수자 아동과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성 정체성을 탐색하고 그것을 긍정하며, '건강'을 누리고, '생명'과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곧 모두의 건강과 생명과 존중을 위한 정책입니다. 다양할수록 그리고 포용할수록 우리 사회에 더욱 이롭다는 걸, 그리고 혐오와 차별에 기댄 '사랑'은 결코 이로울 수 없다는 걸 부디 깨달길 바랍니다.

[성명]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곧 모두를 위한 평등이다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며

올해도 어김없이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서로를 격려하며 혐오 없는 세상이 올 거라는 희망을 되새기는 날이지만-물론 오늘도 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올 한 해 동안 뼈아픈 소식들을 접하면서 우리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체감합니다. 인권은 더 후퇴하고 있고 차별과 혐오는 더욱 정교하고 단단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능력주의와 불공정 담론으로 도치되고, 경쟁과 힘에 의해 그 저변을 잠식당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합니다. 게다가 전염병으로 불만이 누적되면서, 도처에는 서로를 향한 분노와 적대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정하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불만을 휘두르지만, 다른 누군가는 호소하고 분노할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그 휘둘러진 불만에 맞아 스러집니다. 결국 이 모두는 사회적 소수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멈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 곳곳에서 성토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이를 회피하고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오선동과 혐오발화를 정치적 수사로 차용하고 이에 기대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더욱 철저하게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고립시키고 절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절망이 곧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합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노동현장에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사랑하는 이와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들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성소수자를 '비정상'이라고, 우리의 요구가 과도한 것이라고 괘시합니다. 그러나 그 혐오적 가치관과 언동으로 누군가의 존재를 당연스레 배제하고 생명과 존엄을 훼손하는 이 사회야말로 비정상이 아닙니까.

성소수자이면서 여성이고, 장애인이며, 노인이고, 비(非)백인이며, 학생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이며, 환자인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는 단지 '성소수자'만을 위한 게 아님을 우리는 절절히 느낍니다. 만인선언문에 열거된 정체성 하나하나가 모두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각각의 존재들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중 무엇 하나라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고 존엄이 위협당한다면, 그것은 '평등'이 아닙니다. 성소수자 혐오 반대가 곧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혐오 반대에 맞닿아 있음을, 나아가 모든 이들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것임을 이 사회는 분명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한 초석으로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법적 제도적 안전망으로, 차별과 혐오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존엄이 최소한 위협당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자유롭고 평등하다.

우리는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외모,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의 존엄과 평등을 위해 우리는 요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2021년 5월 17일
성소수자부모모임

4. 무지개예수

- 무지개 예수 거리 축복식 (현우 목사 / 자캐오 신부)

“당신과 나는 다양함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 무지개 예수 거리 축복식 (현우 목사 / 자캐오 신부) -

(✦ 표시는 인도자, ⊙ 표시는 함께 한 모든 분들이 함께 합니다.
종이 울리고 다시 한 번 울릴 때까지,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 우리는 서로의 축복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 우리는 신을 믿든 안 믿든, 때로서로의 믿음이 다를지라도
서로를 축복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 나는 당신의 축복이 되고

⊙ 당신은 나의 축복이 되어,

- ✦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축복이 되어 ‘따로 또 같이’ 연대합니다.
- ⊙ 이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 이제 우리, 이 멋진 날을 축복합시다.

(잠시 침묵합니다.)

- ✦ 천지만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들에 깃들여 계신 우리들의 하느님.
- ⊙ 이 좋은 날,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 모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니 감사하나이다.

- ✦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쫓겨난 모든 이와 성소수자 길벗들이
그 모습 그대로 우리들의 새로운 식구가 되게 하시고,
- ⊙ 주님의 입맞춤이 주는 힘으로 사랑의 관계를 되찾게 하소서.

- ✦ 주님의 이름을 악용한 모든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거절하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 ⊙ 차별에는 거룩하고 차가운 분노로,
- ✦ 배제에는 끈기 있는 연대로,
- ⊙ 혐오에는 힘 있는 축복으로 끝내 이겨내게 하소서.

- ✦ 주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성 소수자 길벗들,
- ⊙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춤추며 웃고 떠드시는 우리들의 하느님.

✦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여기서부터 한 구절씩 큰소리로 외치며, 성수와 꽃잎을 뿌려 축복합니다.)

- ⊙ 연약함으로 강하게 하시는 창조주와
참사랑이신 성자와
우리들의 호흡이신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 ✦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 덧. 〈 서울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축복 기도문 〉 (2014.06.07. 신촌 연세로) & 〈

우리, 서로의 기도가 되다 > (2018.05.17) 기도문에서 수정.

5.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사회 : 창구(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발언

- 심기용(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한성진(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하루(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 김보미(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심기용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의 심기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촌을 지난 시민 여러분. 지금 저희는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 다호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 중입니다. 저는 게이입니다. 같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죠. 본인이 굳건한 이성애자 라고 생각하시는 남자인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자진 이해가 안 된다, 좀 더럽다 이런 반응을 보여주시곤 합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기로는 피차 같고, 면전에 대고 성정체성을 더럽다고 하는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면 되는데요. 국제적으로 성소수자 혐오 반대, 차별 반대의 날까지 지정하는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러우면 피하면 된다는데, 성소수자 혐오는 사회적이고 구조적이고 국가적이고 어디든 만연하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군대에서 전역한 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한국 군대는 동성애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앵 거짓말 아닌가? 2017년 육군은 대위 등 직업군인, 그리고 병사들 중 동성애자들을 쥐 잡듯 색출해서 앉혀놓고 동성애자냐, 어떤 체위를 좋아하냐, 게이야동을 보느냐, 여자 역할이냐 남자역할이냐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도 항상 절대로 성범죄 저지르면 안 된다고, 사실 다른 이성애자 남자 친구들도 범할 수 있는 부분에서 특별히 경고를 받곤 했습니다.

제 트랜스젠더인 친구들은 성별정정이 너무어무 어려운데, 이 성별정정을 못하면 취직 자체를 못합니다. 본인의 성별이 잘 들어나지 않는 저임금 노동을 하도록 강제되기도 하고, 공무원이나 교사가 되는 것은 꿈꾸지도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누군가는 시험 점수를 따기 어렵게 고민인데, 누군가는 시험을 볼 지 부터가 고민인 것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인 제 트랜스젠더 친구는 본인은 여성인데, 학교에서는 남교사로 불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과 학생, 직장동료 모두 속이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성소수자라 경험해야 하는

차별이 곳곳에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가끔 "너희들이 성소수자인 거 상관 없는데, 퀴어축제 같은 거 하지마라. 인정받는 거에 환장한 인정환자들 같다. 왜 굳이 커밍아웃 하나. 이성애 커밍아웃 하는 사람 봤냐"는 표현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애초에 커밍아웃할 필요라는 것은 사회환경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는 내 주변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소수자를 처벌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하려고 하고, 성소수자를 일터에서 내모려고 하는 그 모든 차별, 인식, 문화가 계속 이렇게 외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소수자가 여기 있다. 내가 성소수자다.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서도 성소수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바람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해서 소중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보고 싶습니다. 동성애를 긍정한다는 20대 답변이 73퍼센트나 되는 한국이니, 제 생전엔 가능할 거 같습니다. 73퍼센트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신혼을 거니는 여러분. 성소수자들과 함께 살기 좋은 사회를 같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인의 동성결혼 청첩장을 받고, 트랜스젠더 친구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커밍아웃하기를 꺼려하지 않고, 사회에서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부당히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위해서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한성진

안녕하세요,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의 대표 한성진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주저한다는 기사를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라도, 공적영역에서 비합리적 또는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게 되었을 때 차별 받은 피해자가 법원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부가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생긴다면 강제력 있는 차별 시정 기구도 생길 수 있겠지요. 우리 누구나 부당한 차별을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차별금지법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차별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역갈등이 극심했던 과거 한국을 생각해봅시다. 내가 호남출신인지 영남출신인지 먼저 구분지어지고, 이에 따라 취업에 불이익을 겪게 된다면 이제는 누구나 쉽게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출신이 아니라 공정히 실력과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고 다들 주장하겠지요. 하지만 당대에는 이런 문화를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떤 것들은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은 차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차별은 안 된다 공감대는 분명 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약 90퍼센트의 시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대한 미루고 논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역구 교계 인사들이 표를 가지고 겁박을 한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성소수자들을 충분히 차별할 수 없고 그들에 대한 혐오발언을 할 수 없어 오히려 교계가 차별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존재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식으로 혐오발언을 쏟아내고 정치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에 계속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작년 23세 청년었던 고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고 트랜지션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전역 처분을 당했습니다. 트랜지션을 한다는 얘기가 워선예 모두 보고되었음에도 후속적인 심사과정에서 트랜스젠더는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며 국방부가 차별적인 인식을 내비쳤고, 변 하사는 말하자면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또 얼마 전 가까운 여성지인은 동성애인이 있다는 것이 회사에 알려져 해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등, 차별을 받는 일은 너무나 즐비합니다.

청년이게 공정한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회의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차별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선입니다. 사실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위직 자녀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눈감는 관행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인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성소수자라는 이유 만으로 더 높은 사회 진입장벽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수시로 우리를 감추고 해고나 집단따돌림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더 이상 선거를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지 맙시다. 민주당이 더 자리 잡으면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는 거짓말 지긋지긋합니다. 함께 목소리 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표합시다. 올해를 차별금지법 제정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감사합니다.

#하루

안녕하세요. 다음에서 활동 하고 있는 하루입니다.

벌써 여름이 오려고 하는지, 날씨가 뜨겁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발언을 하려하니, 어린 시절 거리에서 발언 하는 분들을 본 기억이 떠오릅니다.

생소한 광경에 길거리에 서서 구경을 했고, 기자 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촌 거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으니, 세상 일은 참 모를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방에서 실시간 강의를 들으며 고통스러워 했고, 곧 다가올 기말고사 기간이 두려운 평범한 학생입니다. 사실 신촌에는 친구들과 놀러온 기억이 다이고, 지금도 신촌 어딘가를 지나던 친구들이 이 기자회견을 보고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성소수자 지인, 동료, 친구, 애인 그리고 가족이 있는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성소수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재밌게 살고자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이 작은 소망마저, 너무도 이기적인 소망으로 만들곤 합니다.

성소수자 공동체는 일 년의 반이 지나지도 않은, 올해 너무도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애절한 소식들에 슬퍼하면서도, 주위의 친구들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온전히 슬퍼하지 못했습니다.

차별에 대항해 사회의 변화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스러지는 것을 보며, 친구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고통, 온 사회가 존재에 침을 뱉는 듯한 고통에 아파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홀로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설픈 위로는 위로와 응원이, 혹시 내가 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위로는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죠.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의 LOVE POEM의 앨범글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온전히 상대만을 위한 배려나 위로는 아닌 그 사람의 평온한 일상을 보고 싶은 나의 간절한 부탁이 아닐까’ 라고요.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동료 시민분들 중에도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는 될까, 내가 하는 위로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닐까.

제가 친구들과 놀러 오고 싶은 토요일 신촌 거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저는 친구들의 곁에서 같이 걸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친구들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순전히 이기적인 결심입니다.
친구들의 온전한, 평화로운 일상이 보고 싶은, 나의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인, 염치없는 부탁이다 보니 바랄 수 있는게 적습니다.
아이유는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염치 없이 부탁하는 입장이니 아주 최소한의 것들만 바라기로 한다.
이 노래를 들어 달라는 것, 저한테는 이 발언이겠죠?, 그리고 숨을 쉬어 달라는 것'

이 염치 없는 부탁을 친구들에게 하기 위해,
저는 친구들과 언제까지나 옆에서, 같이, 손잡고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것입니다. 너도 내 옆에서 같이 걸어달라고.

차별금지법과 여러 법을 제정하라는 외침, 그리고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목소리들은, 우연히 마주친 생소하고 신기한 광경만은 아닙니다.
이 목소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은 저와, 성소수자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앨범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평생 업고 갈 수 있는 타인은 없다. 하지만 방향이 맞으면 얼마든 함께 걸을 수는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걸어가는 법을 고민하신다면, 이 기자회견과 성소수자 공동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IDAHOBIT)은 동성애가 WHO 질병 목록에서 제외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흐름에서 2018년에 트랜스젠더 정체성도 질병 목록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습니다. 성소수자를 병리화 하는 사회에 맞서온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입니다.

한국에서는 군대, 대학, 기업, 가족 등 일상 속에서 성소수자가 끊임없이 문제화, 병리화, 범죄화됩니다. 성소수자 자체를 논쟁적인 것으로 문제시하며 언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존재를 숨기게 만드는 문화가 만연합니다. 여전히 성소수자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치료'의 대상으로 규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성소수자의 삶을 범죄적으로 바라보고 불이익을 주고 처벌하려는 제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이러한 차별적 요소들은 모두 철폐되어 갈 것입니다.

정체성을 이유로 우리의 인격을 의심받고 존엄을 위협받을 때, 우리는 이것을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자체로 존엄하고 온전합니다. 우리의 성적체성 또한 존엄하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모두 이 당연한 전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의 영역에서 성적체성을 숨기고 현실과 타협하여 돈 벌며 살아가는 청년 성소수자들이 많습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야지, 성적체성이 밝혀지면 잘릴 거야, 가족들에겐 절대 알리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사회가 성소수자를 나쁜 것, 문제적인 것, 논쟁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그러한 사회적 조건에 개입하며 성소수자 인권 개선에 힘 쓸 것입니다.

성소수자의 존엄이 제대로 보장받는 사회를 꿈꿔봅니다.

2021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아이다호를 기념하며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음

6. 녹색당

사회 : 김지윤(녹색당 정책팀장)

발언

- 상현(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소냐(녹색당 성평등위원장)
- 신현정(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이수희(녹색당 여성특위 위원)

7. 자유발언

- 창현
- 윤김명우

8. 큐캔디 QCanD

- 춤 : Tiffany 〈Run for your life〉 (3인)
- 발언 : 류 (큐캔디 멤버)
- 춤 : 온앤오프 〈Beautiful Beautiful〉 (4인)

#발언

안녕하세요. 저는 류 라고 합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가진 퀴어들이 모여 춤추며 저항하는 퀴어댄스팀, 큐캔디에서 즐겁게 춤추고 있습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발언으로, 춤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척 기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동성애를 질병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도 질병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며 차별과 혐오가 가득한 세상에 하나하나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가시화될수록 차별과 혐오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명도 잃을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남은 모두에게 춤을 통해 위로와 힘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어떤 혐오의 말도, 어떤 차별도 끝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울 수는 없다고 온 몸으로 외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큐캔디 멤버들과 함께 구슬땀 흘리며 두 곡의 춤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첫 곡은 티파니 영의 run for your life입니다. 70년대 미국 뉴욕, 퀴어들이 모여 자신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춤을 추던 무도회 ball에서 탄생한 보깅댄스로 만든 안무가 돋보이는 곡입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당당히 싸워나가는 우리들을 닮은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곡은 온앤오프의 beautiful beautiful입니다. 저희들의 힘찬 몸짓과 함께 이 곡의 가사에 마음을 담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보란 듯이 우린 더 크게 외쳐 불러 노래
살아 있다 우린 꿈을 꾸다 우린 아름다운 우리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보란 듯이 더 크게 노래하고 춤추기를 멈추지 맙시다. 차별의 시대가 우리의 삶을 앗아가려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에 기대어 계속 살아나갈 힘을, 다시 노래하고 춤출 힘을 주고받읍시다. 오늘은 절망을 딛고 오늘을 축복하는, 이 순간 함께 하는 우리들의 굳건한 연대를 확인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합니다. 연결된 우리가 이 차별의 시대를 기어코 바꿔놓을 거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